


자성대노인복지관(센터) 운영위원회 2019년 2분기 회의록

결 재	담당	과장	관장
			

일 시	2019. 6. 25.(화) 11:30~13:00	장 소	복지관4층 관장실
진 행	이은숙(시설장)	작 성 자	김현경(간사)
참 석 자	○ 총 8명 중 6명 참석 -참석자: 위원 이수봉, 박명순, 이기영, 최만철, 이은숙, 서기 김현경(6명)		
주요안건	○ 2019년 2분기 사업 추진 실적 및 3분기 주요사업 계획 ○ 기타 논의사항		
회의내용	<p>1. 개회선언</p> <p>이은숙위원: 전체 위원 8명 중 6명 참석,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회의정족수를 충족하였기에 2019년 2분기 자성대노인복지관(센터) 운영위원회 개최 선언 및 참석 감사 인사 전달, 전수혜위원장님 건강 상 이유로 부득이 불참 양해 말씀 드립니다.</p> <p>2. 2019년 1분기 회의 결정사항 보고</p> <p>-운영위원 재위촉 및 위촉장 전달 -2019년 1분기 사업실적 보고 및 2분기 주요사업 계획 심의 -2018년 결산 및 2019년 1차 추경예산 보고</p> <p>3. 자성대노인복지관 회원 및 이용자 현황</p> <p>-복지관 회원수: 6월현재 5,853명(신규회원102명) -프로그램 이용자 현황: 26개강좌 40개반, 447명, 1,233건 신청</p> <p>4. 2019년 2분기 사업 실적 보고 및 3분기 주요사업 추진 계획 심의</p> <p>-각 사업별 2분기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3분기 주요사업 추진 계획(회의자료 참조) -이기영위원: 영화제작반 운영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? -이은숙위원: 촬영장비 등은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고 감사비는 복지관 운영보조금으로 집행 계획임. -이기영위원: 방송국이나 촬영기자 관련 베이비부머 은퇴자 등을 활용하여 재능기부 활동으로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음. -최만철위원: 도시락, 일반찬배달서비스는 주말같은 공휴일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? -이은숙위원: 도시락서비스는 대체식으로 토요일까지 주6일 나가며, 양을 조금 넉넉하게 드리고 있고, 도시락예산이 30명으로 내려오지만 실제 35명으로 나가고 있어 자체 후원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상황임. -최만철위원: 공휴일 식사가 어려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, 냉장고에서 음식을 챙겨드시지 않아 버려지는 경우도 있어, 직접 냉장고 음식 정리를 해 준 적도 있음. -이은숙위원: 배달서비스 진행 시 도시락만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1회라도 냉장고를 직접 확인하여 반찬량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. 이 부분은 시행토록 하겠음. -박명순위원: 선풍기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? -이은숙위원: 홀몸어르신에게 우선 지원하는데, 고독사예방사업에서도 선풍기가 필요하여 추가적으로 후원처 발굴을 통해 지원하고자 함. -박명순위원: 지원주기는 어떻게 되는지? -이은숙위원: 해년마다 지원하고 있어 명단관리를 통해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함.</p>		

회의내용	<p>-이기영위원: 복지관이 앞으로는 여가시설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, 베이비부머세대를 포괄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. 부산에도 50+센터가 건립 계획에 있어, 노인복지관 이용자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임.</p> <p>-이은숙위원: 50+센터 이용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요?</p> <p>-이기영위원: 50세부터 69세까지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이용자 연령대와 맞물림. 60대 이용자는 노인복지관보다 50+센터 이용을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, 노인복지관은 후기고령자를 타겟으로 할 것인지, 베이비부머세대를 함께 포괄할 것인지 그에 맞춰 기능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함. 전기, 후기노인의 이원화가 필요함.</p> <p>-이수봉위원: 노인인구가 많아져서 갈수록 문제임. 외국 어느 도시는 고령친화도시로 선정하여 노인을 위한 도시를 잘 구축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음. 그러나 우리는 현재 선배시민 회장역할을 하고 있지만, 선배시민의 역할을 해보려고 해도 할 데가 마땅치 않음. 노인일자리 수요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선배시민의 역할을 제대로 발하기 힘든 상황.</p> <p>-이기영위원: 선배시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수요처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.</p> <p>-박명순위원: 정부에서 이러한 노인들이 사회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과 활동영역을 개발해 줘야 함.</p> <p>5. 기타 논의사항</p> <p>-김현경위원: 현재 프로그램 접수방법이 선착순제로 되어 있지만,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시면서 안전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, 기존회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선착순제를 폐지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고, 대기시간 없이 편리한 추첨제를 도입하고자 함.</p> <p>-이은숙위원: 며칠전에 반장간담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고, 두 명의 회원이 반대하기는 하였으나, 회원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설명함. 직원들이 아무리 일찍 나갔도 어르신들이 자꾸만 더 빨리 나오시기 때문에 무한정 오픈시간을 당길 수는 없다고 안내하니 이해하신다고 함.</p> <p>-이수봉위원: 복지관이 평지에 입지해 있고 남구 경계에 있다보니 타구에서 자꾸 유입되는데 이미 수용인원을 초과하였다고 생각됨.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건지?</p> <p>-이은숙위원: 부산시내 경로식당 식권과 프로그램 이용료가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타구에서 알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는 식대와 프로그램 수강료를 타 복지관 수준으로 평준화 시킬 예정임.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리서까지 복지관을 이용하는 타구민들 이용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.</p> <p>-박명순위원: 타구에서 오는 사람들은 지하철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동구 산복도로에 거주하는 동구민들은 복지관 이용이 어려움. 순환버스가 있지 않은 이상 접근이 쉽지 않아 그쪽에도 분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음.</p> <p>-이기영위원: 이용자가 분산되는 것이 맞겠고, 건물을 사실 크게 지어 많은 어르신들을 포용해야 함.</p> <p>- 이은숙위원: 이번 분기 회의에는 2019년 2분기 사업실적과 3분기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, 기타 안건으로 프로그램 접수방법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.</p> <p>- 모든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였고, 프로그램 접수방법에도 추첨제를 찬성함.</p> <p>- 위원장 대신 이은숙위원이 참석해 주신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회의를 마침</p>
결정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019년 3분기 주요사업 계획 심의 의결 2. 기타 안건: 프로그램 추첨제 도입 결정

<p>사 진</p>	
<p>기 타</p>	<p>-</p>

· 끝.